

#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 2024년 정기 이사회 의사록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4시 30분, 경실련 강당
- 참석(5) : 임효창 이사장, 김호균·설원식·고경일·김성달 이사
- 위임(6) : 김종근·원동환·박병일·나준희·김진현·박경준 이사

### ■ 회의내용

1. 권오인 국장이 재적인원 11명 중 참석 5명, 위임 6명으로 (사)경제정의연구소 정관 제24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임효창 이사장이 이사회 개회선언을 하다.
3. 임효창 이사장이 전차 회의록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4. 정호철 간사가 2023년 연구소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하다. 임효창 이사장이 <제31회 좋은기업상 및 제8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 거절의 이유를 이사들에게 묻고, 설원식 이사와 권오인 국장이 그 이유에 대해 “정부기조로 인한 수상기업들의 부담감”이라고 답변하다. 이에 임효창 이사장이 2년연속 수상 거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다. 또한 설원식 이사가 지표개선 관련 ‘소비성 지출항목’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할 것을 조언하다. 이에 정호철 간사가 2024년도 지표개선 사업에 반영토록 하기로 하다. 이어서 정호철 간사가 2023년도 연구소 일반사업에 대해 보고하다. 이사장이 관련 사업보고에 대해 이의여부를 묻고, 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5. 안건 심의
  - ① 제1호. 신임 연구소장 선임의 건
    - 설원식 소장의 임기만료(잔임. 2022.4.~2024.4.) 상황에서 후보자가 없음에

따라, 임효창 이사장이 정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임 연구소장 후보로 이사회 임원 중 고경일 이사를 추천한 배경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선임 여부를 묻은 뒤 이를 참석 이사 전원의 박수로 통과시키고 신임 고경일 연구소장에게 선임장을 수여하다.

② 제2호. 신임 기업평가위원장 선임의 건

- 나준희 위원장이 임기만료(연임. 2022.4.~2024.4.)로 정관 제29조에 따라 소장의 추천을 받아 후임으로 이영일 교수를 추천한 배경을 설명하다. 이에 이사장이 선임 여부를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의 박수로 통과시키다.

③ 제3호. 2023년 결산 심의의 건

- 권오인 국장이 2023년 감사결과 적정의견,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상의 부채 및 자산, 지출 및 수입 등의 내용을 설명하다.
- 결산보고서 관련, 김성달 이사가 사업비 지출 항목의 ‘중앙지원금’에 대해 “향후 지출근거를 보충하라.”는 감사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다.
- 손익계산서 관련, 임효창 이사장이 정호철 간사(현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연구소 업무 겸무에 따른 향후 인건비 지출계획에 대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적정 감사의견 등 자문을 구할 것을 사무국에 지시하다.
- 그밖의 사항에 대해 이사장이 이의 여부를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④ 제4호.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 권오인 국장이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수입 및 지출과 비교하며, 보수적으로 잡았음을 설명하다. 또한 2023.11. 체결한 타워크레인 연구용역계약의 연구용역비 총 1억3천만원 중 3천만원이 선수금으로 책정(2024.12.말 기준)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다.
- 이에 임효창 이사장이 관련 연구용역비 선수금에 대해 2024년도 예산(안) 추경 여부에 대해 묻고, 김성달 이사가 감사의견에 따라 향후 2024년 결산 보고서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수정 보고할 것으로 답변하다.
- 이사장이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⑤ 제5호. 2024년 사업계획(안) 심의의 건

- 정호철 간사가 2024년 사업으로 <제33회 좋은기업상>, <국토부, 산하부처, 관련 공기업 관피아 실태조사 및 보고서 제작>, <민간 및 공공기관 대상 ESG 교육>,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방안 모색 내부 세미나>, <타워크레인 안전과 정당한 노동 대가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또한 <제32회 좋은기업상 및 제9회 좋은사회적기업상 평가와 시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의 공시 지연과 상장기업과의 공시 시차로 인해 평가와 시상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이에 설원식 이사가 함께 진행해온 좋은기업상과 좋은사회적기업상의 시상 일정을 향후 각기 분리하여 시상식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다. 이에 임효창 이사장이 <제31회 좋은기업상 및 제8회 좋은사회적기업상> 결과를 포함하여, 3월 중 <제32회 좋은기업상 및 제9회 좋은사회적기업상 평가>를 속히 마무리하고 4월~5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것을 사무국에 지시하다. 또한 <제33회 좋은기업상>의 경우, <제10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과 분리하여 사업을 집행토록 하고, 올해 좋은사회적기업상의 평가와 시상식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평가위원회에 의견을 구해 하반기중 진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다.
- 한편, 설원식 이사가 향후 우리 연구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공기업 평가)와 시상”을 제안하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충분히 활용하면 유의미한 평가가 가능함을 설명하다. 이에 기업평가위원회와 사무국에서 향후 이를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관피아 근절 운동> 관련, 권오인 국장이 국토부 산하기관 관피아 실태의 사각지대에 대해 추가조사 방안과 그 필요성에 대해 첨언하고 6월~7월 중 조사결과 발표예정임을 보고하다.
- <ESG 교육> 관련 임효창 이사장이 민간 수요에 대해 질의하고, 권오인 국장과 정호철 간사가 회원이나 대학생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ESG 교육 수요와 사회공헌이 증가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또한 임효창 이사장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공공기관 대상 ESG 교육 요청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충 설명하다. 이어서 정호철 간사가 민간의 경우 상반기 5~6월(대학생 기말고사 이후), 공공의 경우 하반기 11~12월(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전)에 예정하고 있음을 첨언하다.
- <정의로운 전환방안 모색 내부세미나> 관련, 김호균 이사가 전업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최근 비용분담 쏠림 현상에 따른 비용편익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3대 주제 (1) 지역고용, (2) 노동, (3) RE100를 제안하다. 이에 우리 이사회는 총 3회(5월, 6월, 7월) 연속세미나와 하반기 중 외부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 중 관련 주제를 보다 확장하여 차기 대선의제로 설정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다.

- <타워크레인 연구용역> 관련, 연구책임자 고경일 이사가 국외 연구방문 (2024.2.11.~2.18.) 결과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고, 향후 사업일정 및 협력방안에 대해 보충 설명하다.
- <연구소 등재후보지 추진 관련> 연구소의 위원 및 회원 영입, 위상 제고, 재정 확충 등을 위해 학술 등재후보지 추진 사업 배경을 설명하고, 참석 이사들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다. 이에 올해부터 중장기적으로 등재후보지 사업을 추진기로 하다.
- 이상의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 이사장의 이의여부를 묻고, 참석 회원 전원이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6.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7.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서기 2024년 2월 29일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

#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 2024년 정기 회원총회 의사록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5시, 경실련 강당

### ■ 회의내용

1. 권오인 국장이 회원 29명 중 참석 2명, 위임 12명, 불참 6명으로 (사)경제정의연구소 정관 제24조에 의거 정회원 과반수가 출석함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임효창 이사장이 회원총회 개최선언을 하다.
3. 임효창 이사장이 전차 회의록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4. 정호철 간사가 2023년 연구소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하다. 임효창 이사장이 <제31회 좋은기업상 및 제8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 거절의 이유를 이사들에게 묻고, 설원식 이사와 권오인 국장이 그 이유에 대해 “정부기조로 인한 수상기업들의 부담감”이라고 답변하다. 이에 임효창 이사장이 2년연속 수상 거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다. 또한 설원식 이사가 지표개선 관련 ‘소비성 지출항목’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할 것을 조언하다. 이에 정호철 간사가 2024년도 지표개선 사업에 반영토록 하기로 하다. 이어서 정호철 간사가 2023년도 연구소 일반사업에 대해 보고하다. 이사장이 관련 사업보고에 대해 이의여부를 묻고, 참석 회원 전원이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5. 안건 심의
  - ① 제1호. 이사 선임(연임)의 건
    - 권오인 국장 및 정호철 간사가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설원식·김종근·박병일·고경일·나준희·원동환 이사의 임기(2022.4.~2024.4.) 만료에 따라 연임을

각각 제안하다. 다만, 원동환 이사의 사임 의사를 존중하여, 이사장이 나머지 5명의 이사들에게 연임(연임 2024.4.~2026.4.) 여부를 재확인하고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이에 참석 회원 전원의 박수로 이를 통과시키다.

② 제2호. 신임 감사 선임의 건

- 이종영 감사의 임기만료 (연임. 2020.4.~2024.4.) 이후 이종영 감사의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여, 권오인 국장이 정관 제26조에 따라 신임 감사 후보로 전성범 회계사를 추천한 배경을 설명하다. 이에 이사장이 선임 여부를 묻고, 참석 회원 전원의 박수로 통과시키다.

③ 제3호. 2023년 결산 승인의 건

- 권오인 국장이 2023년 감사결과 적정의견,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상의 부채 및 자산, 지출 및 수입 등의 내용을 설명하다.
- 결산보고서 관련, 김성달 이사가 사업비 지출 항목의 '중앙지원금'에 대해 "향후 지출근거를 보충하라."는 감사에 대한 부가적 의견을 회원들에 전달 하다.
- 손익계산서 관련, 임효창 이사장이 정호철 간사(현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연구소 업무 검무에 따른 향후 인건비 지출계획에 대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적정 감사의견 등 자문을 구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다.
- 그밖의 사항에 대해 이사장이 이의 여부를 묻고, 참석 회원 전원이 동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다.

④ 제4호.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권오인 국장이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수입 및 지출과 비교하며, 보수적으로 잡았음을 설명하다. 또한 2023.11. 체결한 타워크레인 연구용역계약의 연구용역비 총 1억3천만원 중 3천만원이 선수금으로 책정(2024.12.말 기준)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다.
- 이에 임효창 이사장이 관련 연구용역비 선수금에 대해 2024년도 예산(안) 추경 여부에 대해 묻고, 김성달 이사가 감사의견에 따라 향후 2024년 결산 보고서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수정 보고할 것으로 답변하다.
- 이사장이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고 참석 회원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다.

⑤ 제5호. 2024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정호철 간사가 2024년 사업으로 <제33회 좋은기업상>, <국토부, 산하부처, 관련 공기업 관피아 실태조사 및 보고서 제작>, <민간 및 공공기관 대상 ESG 교육>,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방안 모색 내부 세미나>, <타워크레인 안전과 정당한 노동 대가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또한 <제32회 좋은기업상 및 제9회 좋은사회적기업상 평가와 시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의 공시 지연과 상장기업과의 공시 시차로 인해 평가와 시상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이에 설원식 이사가 함께 진행해온 좋은기업상과 좋은사회적기업상의 시상 일정을 향후 각기 분리하여 시상식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다. 이에 임효창 이사장이 <제31회 좋은기업상 및 제8회 좋은사회적기업상> 결과를 포함하여, 3월 중 <제32회 좋은기업상 및 제9회 좋은사회적기업상 평가>를 속히 마무리하고 4월~5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것을 사무국에 지시하다. 또한 <제33회 좋은기업상>의 경우, <제10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과 분리하여 사업을 집행토록 하고, 올해 좋은사회적기업상의 평가와 시상식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평가위원회에 의견을 구해 하반기중 진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다.
- 한편, 설원식 이사가 향후 우리 연구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공기업 평가)와 시상”을 제안하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충분히 활용하면 유의미한 평가가 가능함을 설명하다. 이에 기업평가위원회와 사무국에서 향후 이를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관피아 근절 운동> 관련, 권오인 국장이 국토부 산하기관 관피아 실태의 사각지대에 대해 추가조사 방안과 그 필요성에 대해 첨언하고 6월~7월 중 조사결과 발표예정임을 보고하다.
- <ESG 교육> 관련 임효창 이사장이 민간 수요에 대해 질의하고, 권오인 국장과 정호철 간사가 회원이나 대학생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ESG 교육 수요와 사회공헌이 증가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또한 임효창 이사장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공공기관 대상 ESG 교육 요청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충 설명하다. 이어서 정호철 간사가 민간의 경우 상반기 5~6월(대학생 기말고사 이후), 공공의 경우 하반기 11~12월(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전)에 예정하고 있음을 첨언하다.

- <정의로운 전환방안 모색 내부세미나> 관련, 김호균 이사가 전업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최근 비용분담 쏠림 현상에 따른 비용편익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3대 주제 (1) 지역고용, (2) 노동, (3) RE100를 제안하다. 이에 우리 이사회는 총 3회(5월, 6월, 7월) 연속세미나와 하반기 중 외부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 중 관련 주제를 보다 확장하여 차기 대선의제로 설정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다.
- <타워크레인 연구용역> 관련, 연구책임자 고경일 이사가 국외 연구방문 (2024.2.11.~2.18.) 결과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고, 향후 사업일정 및 협력방안에 대해 보충 설명하다.
- <연구소 등재후보지 추진 관련> 연구소의 위원 및 회원 영입, 위상 제고, 재정 확충 등을 위해 학술 등재후보지 추진 사업 배경을 설명하고, 참석 이사들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다. 이에 올해부터 중장기적으로 등재후보지 사업을 추진기로 하다.
- 이상의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 이사장의 이의여부를 묻고, 참석 회원 전원이 원안대로 승인하다.

6.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서기 2024년 2월 29일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